

성경에서 보여준 묵상

1) 낭독 (입으로 소리내어읽기)

[신 31:11~13]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찌니,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언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찌니라

[수 1:8]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

[시 119:131]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혈떡였나이다

2) 듣기 (소리로 듣고, 행동으로 순종하기)

[롬 10:17]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

[사 30:9] ~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 하는 자식이라

3) 깨달음

(사리를 이해하고 분별하여 인정함 / 도를 신비적으로 깨우치는 종교행위가 아님)

[느 8:8~9]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게 하며,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

[마 15:16]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

4) 죄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함

[느 9:3] 이날에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여호와께 경배하는데

5) 암송하기 (기억하기)

[민 15:40]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기록하리라

[말 4:4]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

6) 공공이 생각하기 (궁구하기)

[시 77:12]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

[전 7:27]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알이 살피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

[전 12:9]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

7) 연구하기

[스 7:10]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

[벧전 1:10]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서

8) 말씀붙잡기 (먹기, 품기, 간직하기, 소중히 아끼기)

[겔 3:1]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

[잠 4:8]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

[잠 7:1] 내 아들이라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

9) 하루종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나누기 (끈끈한 교제)

[시 119:97]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

[암 3:3]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

10) 순종하기 (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순종을 요구함)

[신 28:2]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

✿ 말씀을 묵상할 때

1. 잘 소리내서 읽기
2. 듣기
3. 암송하기
4. 꼼꼼히 생각하기
5.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하기
6. 자기를 만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
7. 하루종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나누기 (끈끈한 교재)

✿ 영국에서의 초기형태

<경건의 시간의 유래>

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구내에서 처음으로 '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'는 슬로우건이 제창되었습니다.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후퍼(Hopper)와 손튼(Thornton)인데 후퍼는 그가 1학년 때인 1882년 킹브리지에서 열린 무디의 전도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.

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공부와 강의, 각종 경기, 자유토론 등으로 꼭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열정적인 활동만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. 이 열정적인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 중 영적 갑옷에 흠이 생겼음을 곧 발견했고 조그마한 틈일지라도 곧 메꾸지 않으면 파멸을 가져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

그들은 해결책을 모색했고 드디어 해결방안을 찾아냈습니다. 하루 중의 첫 시간 얼마를 성경읽기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보낼 계획을 세웠고, 그들은 이것을 '경건의 시간' 이라고 불렀습니다. 경건의 시간이 그 갈라진 틈을 메꾸어 주었습니다.

경건의 시간은 밀려오는 활동의 압력으로 빛을 잃어가던, 매일 재발견되어야 할 진리들을 소중히 간직하게 해주었습니다.